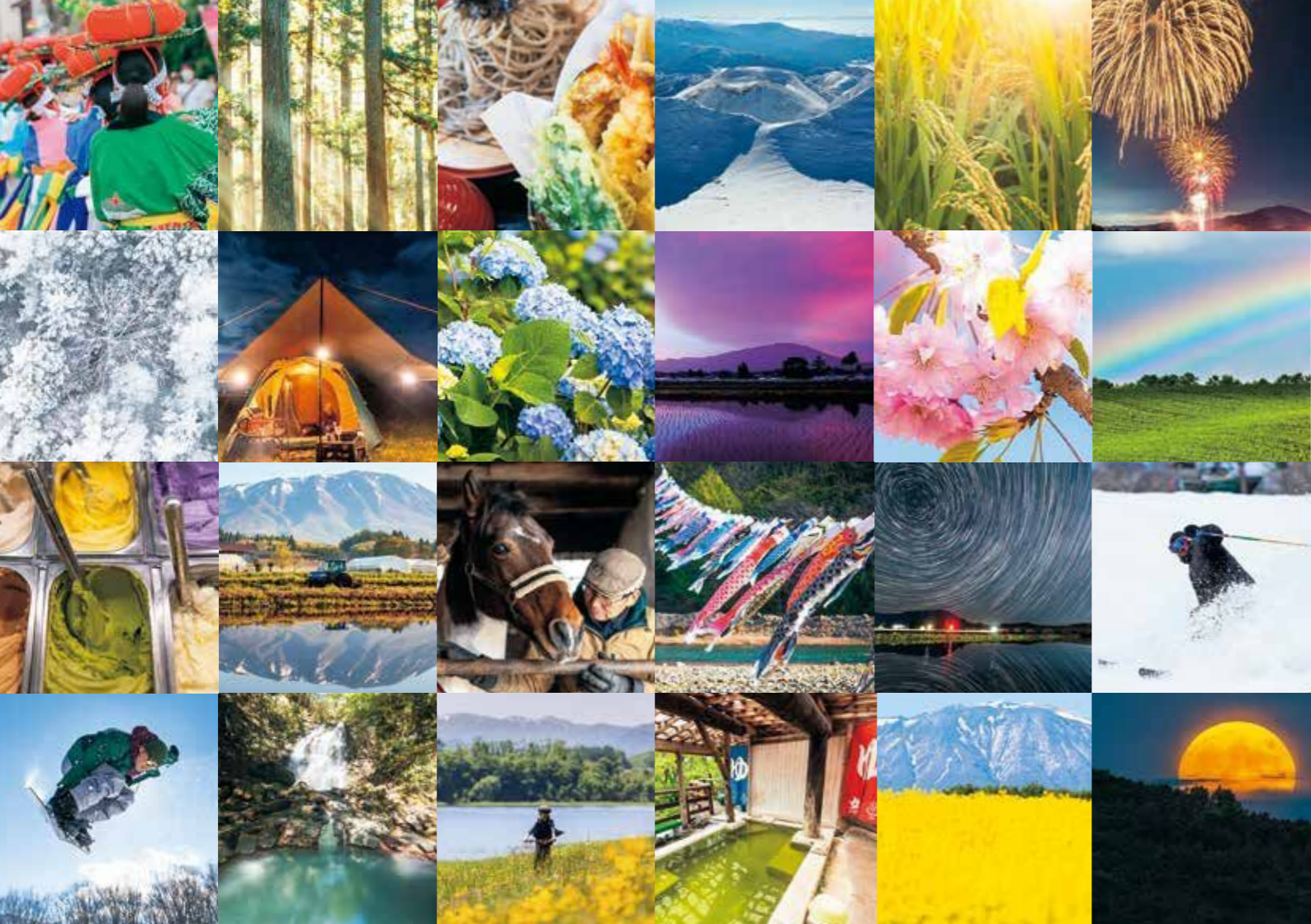


시즈쿠이시 여행 브로셔



DISCOVER
SHIZUKUISHI



시즈쿠이시초 - 사계절의 매력

이와테현 서부 산간 지역에 위치한 시즈쿠이시초는 연중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테산을 비롯한 산들에 둘러싸여 있어 스노 스포츠의 메카로서 알려져 있으며, 따뜻한 계절에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이킹은 물론, 그림처럼 아름다운 자연 속에 몸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온천, 아웃도어 액티비티, 전통공예, 현지 농산물 등 다양한 매력이 있습니다.





DISCOVER
SHIZUKUIS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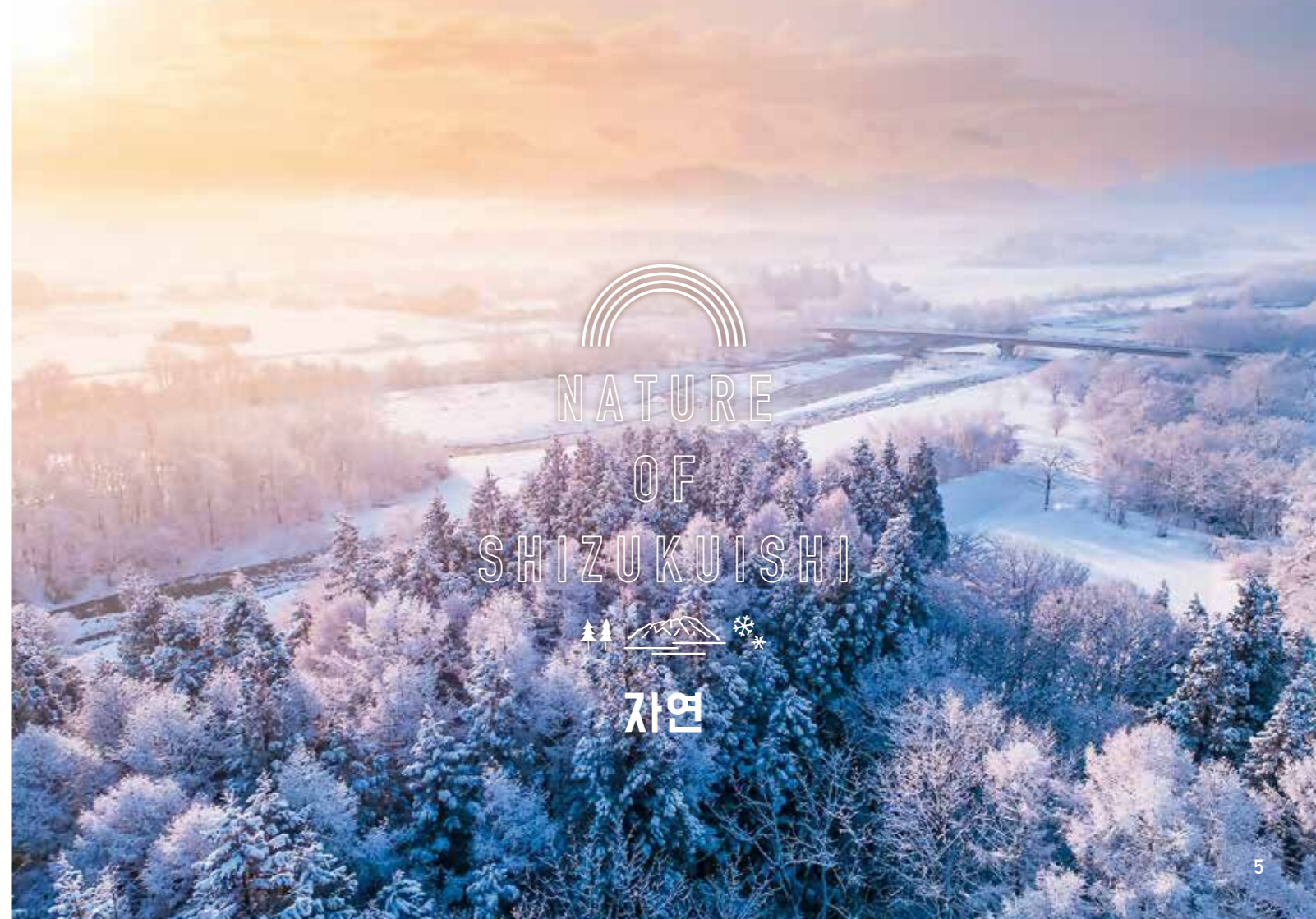


시즈쿠이시초에는 무지개가 자주 뜹니다. 봄에는 마을의 상징인 벚나무 가로수에, 겨울에는 이와테산의 설경에 무지개가 드리워져 '무지개가 어울리는 마을'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탄생했습니다.

목차

자연:NATURE OF SHIZUKUISHI	5
문화:CULTURE OF SHIZUKUISHI	25
위치:LOCATION LIST	38
교통:ACCESS INFORMATION	40

Photographer / Pete Leong William Quinlan Faris IWANE DAISUKE



NATURE
OF
SHIZUKUISHI



자연



시즈쿠이시초 트레킹

시즈쿠이시초 북서부는 도와다하치만타이 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며, 시즈쿠이시 내에는 몇 개의 산이 있습니다. 이 산들은 다양한 등산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 백명산 중 하나인 이와테산(해발 2,038m)을 비롯해 에보시다케 산, 아키타 고마가타케 산, 미쓰이산 등에 갈 수 있습니다. 등산 경험자는 물론, 느긋하게 걷고 싶은 사람도 이 지역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즈쿠이시초의 주요 하이킹 코스를 소개하면서 시즈쿠이시초에서 더욱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정보를 소개합니다.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긴다면 '아미마리 비지터 센터'를 추천합니다. 레크리에이션 활동 외에 이와테산을 비롯해 국립공원 구역 내에 있는 산들의 자연과 역사에 관한 정보를 AR (증강 현실) 등의 인터랙티브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산 경로를 나타내는 지형도 등의 정보도 다국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테산

이와테현의 최고봉 이와테산(2,038m)의 남서쪽 기슭에 있는 곳이 시즈쿠이시입니다. 이와테(岩手)라는 지명은 '바위 손'을 뜻합니다. 유명한 전설에 따르면 사악한 요괴가 지역 사람들을 괴롭히자 신이 별로 바위산에 요괴를 묶었다고 합니다. 신은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요괴에게 다시는 인간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어, 이에 대한 맹세의 표시로서 바위 중 하나에 손자국을 찍게 했다고 합니다. 그 후 수 세기에 걸쳐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산을 신성한 곳으로 여겨 산악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시즈쿠이시에서 이와테산에 오르는 코스로는 '오미사카 코스'와 '아미마리 코스' 2개의 주요 경로가 있으며, 모두 상급자용 코스입니다. 아미마리 코스는 아미마리 온천 스키장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리 분들께 드리는 조언
이 지역은 반달가슴곰의 서식지입니다. 배낭이나 트레킹 홀에 방울을 다는 등 곰이 접근하면 방울을 울리도록 하십시오.

미쓰이시산

미쓰이시산에는 현곡을 따라 걷는
중급자용 다키노우에 코스와 거리가
짧아 인기 있는 오쿠산도 코스, 이렇게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미쓰이시산은
일본 혼슈에서 가장 먼저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겨울에는
서리와 눈으로 덮인 기괴한 수빙 숲
'스노 콘스터'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등산객들로 붐빕니다.



에보시다케 산

에보시다케 산에는 센소가하라
운천을 지나는 삼급자용 코스
'다키노우에 운천 코스'가 있습니다.
센소가하라에는 '천 개의 늪'
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처럼 1,000
개에 가까운 늪이 있으며, 다양한
고산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아키타 고마가타케 산

이 산을 오르는 구니미 운천 코스는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으며,
여름에는 많은 고산식물이 꽃을 피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미하리 숲

이와테산의 남쪽 기슭에 펼쳐진 너도밤나무와 물참나무를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숲으로, '아미하리 숲 자연 탐방로'가
정비되어 있으며 꽃, 야생 조류, 곤충, 단풍, 눈, 동물의 발자국
등 그 계절만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한 바퀴를
돌아보는 데 약 1시간이 소요되며 이 지역의 자연을 탐방하기
위한 코스로 제격입니다. 어느 계절에 방문해도 가치가 있는
숲이지만, 특히 가을 단풍 시기의 풍경이 아름다우며, 겨울에는
스노슈를 신고 즐기는 산책도 추천합니다. 인접한 아미하리
비지터 센터에서는 스노슈와 전통 설피(일본의 강설 시대에서
옛날부터 사용된 나무로 만들어진 타원형 스노슈)를 빌릴 수
있습니다.



도리고에 폭포와 오타키 폭포

이 두 개의 폭포는 특히 초여름에는 신록으로 둘러싸이고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드는 명소입니다.

도리고에

도리고에 폭포는 시즈쿠이시초 교외에 있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갓콘다 계곡을 따라 있는 낙차 30m의 폭포입니다. 폭포 근처에는 다키노우에 온천이 있고, 기슭에서는 선명한 초록빛 물에서 아만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키노우에 온천은 당일 이용객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폭포 구경과 함께 온천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겨울철에는 다키노우에 온천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폐쇄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타키

오타키 폭포는 도리고에 폭포보다 작지만, 오슈쿠 온천 마을 안에 있어 이 아름다운 폭포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슈쿠 온천 거리에서 걸어서 2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아미하리 비지터 센터

아미하리 비지터 센터는 도와다하치만타이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며, 이와테산을 비롯한 국립공원 구역 내의 산에서 진행되는 레크리에이션과 자연, 역사 등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리뉴얼되었으며, AR(증강 현실) 등의 인터랙티브 기술을 활용해 하이킹 경로를 나타내는 지형도 등의 정보를 다국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미하리는 이와테산, 에보시다케 산, 아키타 고마가타케 산, 미쓰이시산, 하치만타이의 5개 산을 연결하는 등산로의 현관문입니다. 직원들은 탐방로 상황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방문객의 니즈와 선호도에 따라 추천 코스를 제안해 드립니다.

인기 있는 액티비티는 여름의 반딧불이 감상, 겨울의 스노슈 하이킹입니다(스노슈 대여 가능). 그리고 계절과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산책로 '자연 탐방로'의 기점입니다. 소요 시간은 약 1시간이며, 이 지역의 자연을 탐방하기 위한 입문 코스로 제격입니다.

아웃도어 액티비티

시즈쿠이시초는 봄에는 분홍색 벚꽃과 신록이, 여름에는 짙은 녹색의 잎과 고산식물의 꽃이 마을 주변의 산길을 수놓습니다. 가을에는 울긋불긋한 단풍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으며, 겨울이 찾아오면 온통 겨울 풍경으로 바뀝니다.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기고 싶은 분께는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캠핑장

시즈쿠이시의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캠핑장은 마을 내에 2곳 있으며, 모두 온천이 결비되어 있어 호텔과 료칸 등의 숙박 시설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치노에키 휴게소 시즈쿠이시 마네키 캠핑장

넓은 이 캠핑장은 시설이 갖춰진 미치노에키 휴게소(지역 특산물의 판매와 관광 정보 등을 제공하는 휴게 시설)에 인접해 있어 미치노에키 휴게소 내에 있는 하시바 온천과 레스토랑, 상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캠핑장은 드넓게 펼쳐져 있고, 잔디밭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갖추어져 있으며, 강에는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구획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미하리 온천 캠핑장

해발 770m에 위치하며, 규카무라 이와테 아미하리 온천 호텔에 병설되어 있는 캠핑장입니다. 이용객은 호텔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한 온천 '아쿠시노유(약사의 탕)'를 즐길 수 있습니다. 부지는 크게 나누어 나무 사이에 자리 잡은 '일간 사이트'와 야외에 있는 '잔디 사이트'가 있습니다. 취사장과 온수 공급 구역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캠핑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나 장비가 없으신 분은 설치된 텐트에 도구와 식재료가 모두 제공되는 편리한 플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캠핑장 옆에는 '아미하리 숲 자연 탐방로'가 있어 나이와 체력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스노슈 하이킹

겨울 자연 탐색으로는 스노슈를 신고 눈 위를 걷는 하이킹도 인기가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설경을 즐기고, 눈에 남아 있는 동물의 발자국을 찾아보며 즐길 수 있습니다. '아미하리 숲 자연 탐방로'는 스노슈 하이킹을 하기에 최적입니다. 인접한 아미하리 비지터 센터에서는 스노슈와 타원형의 전통 설피(일본의 강설 지대에서 옛날부터 사용되었던 스노슈)를 대여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탐방로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야생동물에 대한 질문에도 답해 줍니다. 체험 투어에 참가하거나 직접 산책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아미하리 비지터 센터에서 스노우슈즈 대여하기

1월과 2월에는 아미하리 방문자 센터에서 가마쿠라모리라는 인근 정상까지 하이킹할 수 있는 스노우슈즈를 대여해 드립니다. 트레일은 보통 깨끗하기 때문에 가파른 경사면을 스노슈 하이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좀 더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정상까지 오르지 않고 방문자 센터 바로 북쪽의 숲을 스노우슈즈로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린 투어리즘과 농업 체험

시즈쿠미시 지역은 양질의 물과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어 예로부터 농업이 번성한 지역입니다. 고분 시대(250~552년경)에는 벼농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도 농축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즈쿠미시초에서는 농사일 및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일본 농촌의 삶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분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제 소바 만들기 체험 등의 요리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대응이 어려운 주민들도 방문객들이 더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노 스포츠

시즈쿠이시에는 이와테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3개의 스키장이 있어 겨울에는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니즈에 맞춰 선택할 수 있지만, 시간이 허락된다면 꼭 모든 리조트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로프에서 하루를 만끽한 후 온천에 몸을 담그면 지친 몸을 달래고 마음도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시즈쿠이시 스키장

최고 품질의 파우더 스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그리고 시즈쿠이시 프린스 호텔과 인접한 편리성은 겨울을 보내기에 이상적입니다. 1993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알파인 스키 세계 선수권 대회가 개최된 명문 스키장입니다. 4.5km 코스를 비롯해 이와테산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20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Shizukuishi 스노 랜드'에서는 눈썰매와 스노 튜빙과 같은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어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에게도 추천합니다. 또한, 설상차(Snowcat)라고 불리는 트럭 크기의 차를 타고 일반 코스를 넘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눈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켓 스키'도 주목할 만한 옵션입니다.

시즈쿠이시 다카쿠라 온천에는 사계절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노천탕이 있습니다. 투숙객뿐만 아니라 당일 이용객도 온천에 몸을 담글 수 있습니다.

아미하리 온천 스키장

본격적인 스키어들 사이에서는 이 지역 최고의 스노 파우더라고 불리는 시설입니다. 도와다야지만타이 국립공원 안에 있는 이누쿠라 산 경사면에 위치하며 원생림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양한 수준의 7개 코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스키 스쿨과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인근에는 '규카무라 이와테 아미하리 온천'이 있으며, 5곳의 온천 순례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당일 이용객도 이용할 수 있는 '야쿠시노유(약사의 탕)'에는 760m 높이에서 조망을 즐길 수 있는 노천탕이 있습니다.



이와테 고원 스노 파크

이와테 고원 스노 파크도 소규모 스키장으로 다양한 종류의 슬로프, 스키 스쿨, 키즈 구역 등이 있습니다. 시즈쿠이시초에 있는 3곳의 스키장 중에서도 길고 매끄러운 경사면을 가진 이 스키장은 특히 스노보더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또한, 잘 갖춰진 모굴 구역과 특별히 정비된 '눈 언덕'을 이용해 스노보드 트릭에 도전할 수 있는 '프리 스타일 코스/스노 파크'도 있습니다. 인근에는 료칸과 호텔 등의 숙박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지유야 서머 켈렌데 (Summer Slope) (워터 점프 파크)

겨울의 시즈쿠이시에는 스노 스포츠를 즐기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지만, '지유야 서머 켈렌데'에서는 눈이 없는 계절에도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노 스포츠 애호가이자 강사 자격을 가진 오너는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계절에 무언가 색다른 것을 제공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수지 브러시를 칸 경사면을 스키와 스노보드로 활주하여 수영장을 향해 점프하는 어트랙션을 고안했습니다. 이 참신한 시설은 현지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다른 슬로프가 3개 있습니다. 처음 타는 사람은 안전한 경사면에서 시작하여 자신감이 생기면 점차 더 어려운 점프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스노보드와 스키를 지참하셔도 상관없지만, 지유야에서는 스노보드와 스키 모두 대여가 가능합니다. 안전을 위해 참여자는 구명조끼와 헬멧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합니다. 어린이는 4세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악천후를 제외하고 우천 시에도 영업하고 있습니다. 3개의 워터 점프대 외 스케이트보드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지 내에는 샤워실과 탈의실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시즈쿠이시 YU-YU 팜의 야부사메 체험과 호스 트레킹

시즈쿠이시 YU-YU 팜은 시즈쿠이시초에서 유일하게 승마와 호스 트레킹(야외 승마)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과거 이와테현의 농촌에서 말은 농사와 이동 수단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자 가족의 일원으로서 소중히 여겨졌습니다. YU-YU 팜에서는 이렇게 말을 아껴왔던 전통이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목장에서는 야부사메(유적마)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야부사메는 달리는 말에 탄 기수가 나무 표적에 화살을 쏘는 고식 궁술로 완전 초보자라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농장주가 야부사메 대회의 경험을 살려 지도하고 있습니다.



승마를 더 오래 즐기고 싶으신 분께는 YU-YU 팜의 가이드가 시즈쿠이시의 아름다운 전원 풍경 속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어린아이나 말이 익숙하지 않은 분도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안심하고 승마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에도 지붕이 있는 공간 내에서 야부사메 연습과 승마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개, 고양이, 토끼, 닭 등의 가축도 사육되고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도 있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입장은 무료이지만, 야부사메 등의 승마 체험은 유료이므로 사전에 예약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고이와이 농장

이와테산 기슭에 있는 고이와이 농장은 1891년에 설립된 일본 최대 규모의 민영 농장으로 약 3,000헥타르의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즈쿠이시초의 낙농업 역사를 배우거나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인 '고이와이 농장 시설'을 견학하고 최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자료관에서 농장의 역사를 배우는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고이와이 농장의 유제품은 일본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농장 레스토랑에서는 다양한 요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낙농업의 과거와 현재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2곳의 사일로와 6곳의 축사 등 부지 내 대부분의 건축물이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물들은 모두 1898년에서 1936년 사이에 건설되었으며, 대부분의 건축물이 현재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미마루 축사 구역에서는 젖소와 송아지를 가까이에서 보면서 현재 낙농업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관에서는 고이와이 농장의 역사를 배울 수 있으며, 창업 당시의 모습과 100년 이상 된 농기구와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연과의 공생

고이와이 농장은 어느 계절에나 볼거리가 있습니다. 봄에는 이와테산을 배경으로 활짝 핀 벚나무 가로수를 촬영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중에서도 100여 년 전부터 목초지에 서 있는 '한 그루의 벚나무'는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이 나무는 옛날에 목장에서 기르던 소들을 강한 햇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심어진 나무로 지금은 높이가 20m나 됩니다.

농장에서는 자연과의 공생을 지향하며, 동식물의 서식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광활한 숲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등의 단체를 대상으로 숲속 자연 체험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의 소중함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ULTURE
OF
SHIZUKUSHI



문화



시즈쿠이시의 온천

시즈쿠이시 지역에는 다양한 수질의 온천이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온천에 몸을 담그는 일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지만,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며 하루를 즐긴 후의 온천은 더욱 특별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온천은 호텔과 료칸 안에 있는 시설도 있고, 독립된 시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일 이용객과 투숙객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미하리 온천

이와테산의 기슭에 있는 '규카무라 이와테 아미하리 온천'은 도와다 호수 아치만타이 국립공원 안에 있는 리조트 시설입니다. 근처에 있는 슬로프를 방문하는 스키어들에게 매우 편리한 시설입니다. 시설 내에는 해발 760m에서 웅장한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노천탕 등 5개의 목욕탕이 있습니다.



오슈쿠 온천

이 작은 온천 마을은 450년 이상 전부터 사랑받아 왔습니다. 온천 거리 중심을 흐르는 오슈쿠 강을 따라 근대적인 호텔부터 가족이 경영하는 전통 료칸까지 다양한 숙박 시설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16세기 후반에 한 남성이 설위파람새가 다친 다리를 온천에 담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온천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골프장도 있어 자동차로 5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구릉지에 펼쳐진 18홀과 골프장 안에 있는 온천에 몸을 담글 수 있는 점이 매력입니다.

미나미 아미하리 아리네 온천

숲속에 있는 독채 숙소 '유코탄노모리'는 당일 이용객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욕탕은 주변 숲과 어우러지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삼림욕과 온천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겐부 온천

갯콘다 강 근처에 있는 조용한 온천으로 수질이 매우 부드럽습니다. 당일 이용객의 입욕이 가능한 숙박 시설도 있습니다.



다음 두 온천 지역은 폭설로 인해 겨울철에 휴장합니다.

구니미 온천

이 온천 마을에 있는 2곳의 료칸, 미시즈카 료칸과 모리산소는 당일 이용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광버스도 오지 않고 휴대전화도 연결되지 않는 계곡에 있어 마을에서 떨어진 곳을 찾는 분들께 이상적입니다. 보기 드문 에메랄드그린 빛의 온천수로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즈쿠이시 다카쿠라 온천

시즈쿠이시 프린스 호텔 내에 있으며, 투숙객뿐만 아니라 당일 이용객도 입욕이 가능합니다. 노천탕에서는 사계절의 절경을 즐길 수 있고, 연못에는 영염색의 잉어가 헤엄치고 있어 일본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호텔에는 골프장도 병설되어 있습니다. 이와테산을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전략적인 요소가 풍부한 36홀 코스가 매력적입니다.

하시바 온천

미치노에키 휴게소 '시즈쿠이시 아넷코'에 병설된 당일 입욕 전용 시설 '신하시바노유'에서는 일본식과 서양식 스타일의 온천을 즐길 수 있으며, 레스토랑과 기념품 가게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캠핑장도 있습니다.



다키노우에 온천

낙차 30m의 '도리고에 폭포'가 압권입니다. 주위 곳곳에서 온천과 수증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폭포 상류에는 너도밤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비탕(秘湯,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온천) 중의 비탕이라는 다키노우에 온천이 있습니다. 료칸 '류칸소'는 당일 이용객도 입욕할 수 있습니다.



시즈쿠이시의 식문화

시즈쿠이시초의 주민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하며,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식품은 사람들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호텔과 레스토랑에서는 가능한 한 현지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즈쿠이시의 식문화 체험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트럭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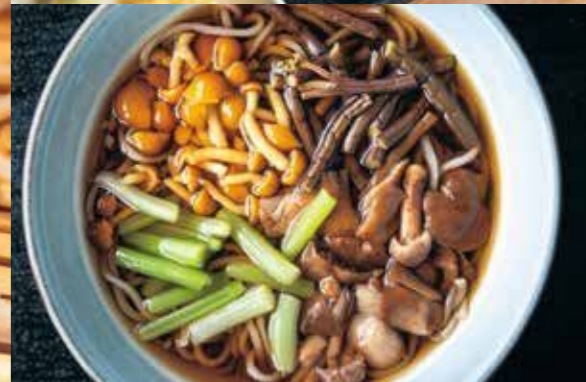
5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열리는 이 노천 마켓에서는 소형 평상형 트럭들이 작은 가게로 변신합니다. 이 이벤트는 시즈쿠이시만의 독특한 행사로, 여러가지 상품을 판매합니다. 현지에서 수확한 신선한 야채, 간식, 수공예품 등 다양한 품목을 요사레 거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시즈쿠이시 주민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소바

일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쌀을 주식으로 삼아 왔지만, 이와테현 등의 도호쿠 지방에서는 여름의 기온이 낮아 쌀 재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강한 곡물을 찾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소바'라는 면의 주재료인 '메밀 열매'입니다. 시즈쿠이시에는 맛있는 소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신선한 물이 풍부합니다.

메밀가루는 현지의 화과자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앙갱은 팔알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즈쿠이시에서는 메밀가루를 사용한 앙갱도 있습니다.





유제품

시즈쿠이시초는 일본 낙농업의 중심지로 유명합니다. 시즈쿠이시 유제품의 높은 품질은 현지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우유를 사용한 제품을 만드는 2곳의 가족 경영 기업 '수제 아이스크림 축사 마쓰부쿠리'와 '시즈쿠이시 치즈 공방'의 유제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시즈쿠이시를 방문했을 때는 두 곳 모두 방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치즈

'시즈쿠이시 치즈 공방'에서는 인기 농가에서 직송된 생유를 사용하여 오너 부부가 만든 카망베르와 카초카발로, 모차렐라 등 다양한 종류의 치즈와 요거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프레시 치즈 전문점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품목을 늘려 세미 하드 타입의 치즈와 따뜻한 계절에는 소프트아이스크림도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원장으로 맛을 낸 일본적인 맛의 치즈도 있으니 한 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및 디트로이트 스타일 피자

소울 키친은 시카고식 딥 디쉬 피자, 디트로이트식 피자 등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작은 가게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멀리 도쿄에서도 손님이 찾아옵니다. 일본 음식 말고 다른 맛이 당길 때, 이곳이 색다른 맛으로 입맛을 다시 살려줄 거예요!



젤라토

'수제 아이스크림 축사 마쓰부쿠리'의 수제 젤라토는 매우 인기가 있어 다른 현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목장을 운영하는 오너가 시즈쿠이시의 자연 속에서 자란 소에서 짜낸 맛있는 우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가게를 열었습니다. 젤라토는 그날 아침에 짜낸 신선한 우유를 사용합니다. 부지 안에는 오너가 직접 만든 산책로가 있어 사시사철 낙엽송 숲의 풍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게 이름인 마쓰부쿠리(솔밭울이라는 뜻)는 작은 낙엽송 숲의 가장자리에 지어진 가게에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우유, 요거르트, 럼 레이즌, 블루베리맛 이외에도 일반적인 고추냉이 맛도 있습니다. 젤라토는 가게 2층에 올라가 낙엽송 숲의 풍경을 바라보며 먹거나 가게 옆의 나무 쉼터에 앉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기쿠노쓰카사 사케 양조장

250여 년 전, 1772년에 설립된 '기쿠노쓰카사'는 이와테현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입니다. 2022년에 양조 시설을 모리오카에서 시즈쿠이시로 이전했으며, 사전 예약을 통해 투어와 시음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양조 과정에 대해 배우고 이와테산의 물로 만든 신선한 사케를 맛보는 특별한 체험을 즐겨보세요.





시즈쿠이시초 역사민속자료관

작지만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시즈쿠이시초 역사민속자료관'은 역사, 문화, 전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이를 불문하고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관내에는 선사시대 출토품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야외 전시에서는 말이 가족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았던 전통적인 주거지인 '마가리아(L자형 주택)'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말이 수송과 농업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료관에서 가장 오래된 전시물은 구석기 시대의 토기입니다. 이 유물들은 이 지역에서 발굴된 32,000년 이상 전의 유물로 추정됩니다. 고대인이 수렵 채집과 어로 문화를 영위하던 조몬 시대(기원전 10,000년~기원전 300년)의 유물 컬렉션도 있어 토기와 도구를 통해 이 지역에 처음으로 정착한 선조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관에는 에도 시대(1603년~1868년)부터 쇼와 40년대(1970년대) 무렵까지의



의복, 문서, 도구, 일용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전시는 킨코오리 직물이라고 불리는 직물의 직조 기법에 관한 전시입니다.

자료관 옆에 전시되어 있는 농가는 이 지역의 전통적인 농가를 이축한 '마가리아'입니다. 말 그대로 L자 모양의 구부러진 집을 의미합니다. 말을 수용하는 마구간과 가족이 사는 안채 사이에 흠바닥으로 된 작업장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시즈쿠이시 같은 농촌 지대에서 말은 소중한 가족이며, 마구간과 안채를 하나의 건물로 만든 '마가리아' 형식으로 집을 지음으로써 혹독한 겨울 동안에도 말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리아는 100년 이상 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통적인 초가지붕과 미로리 화로가 있습니다.





깃코오리 직물과 시즈쿠이시 아사노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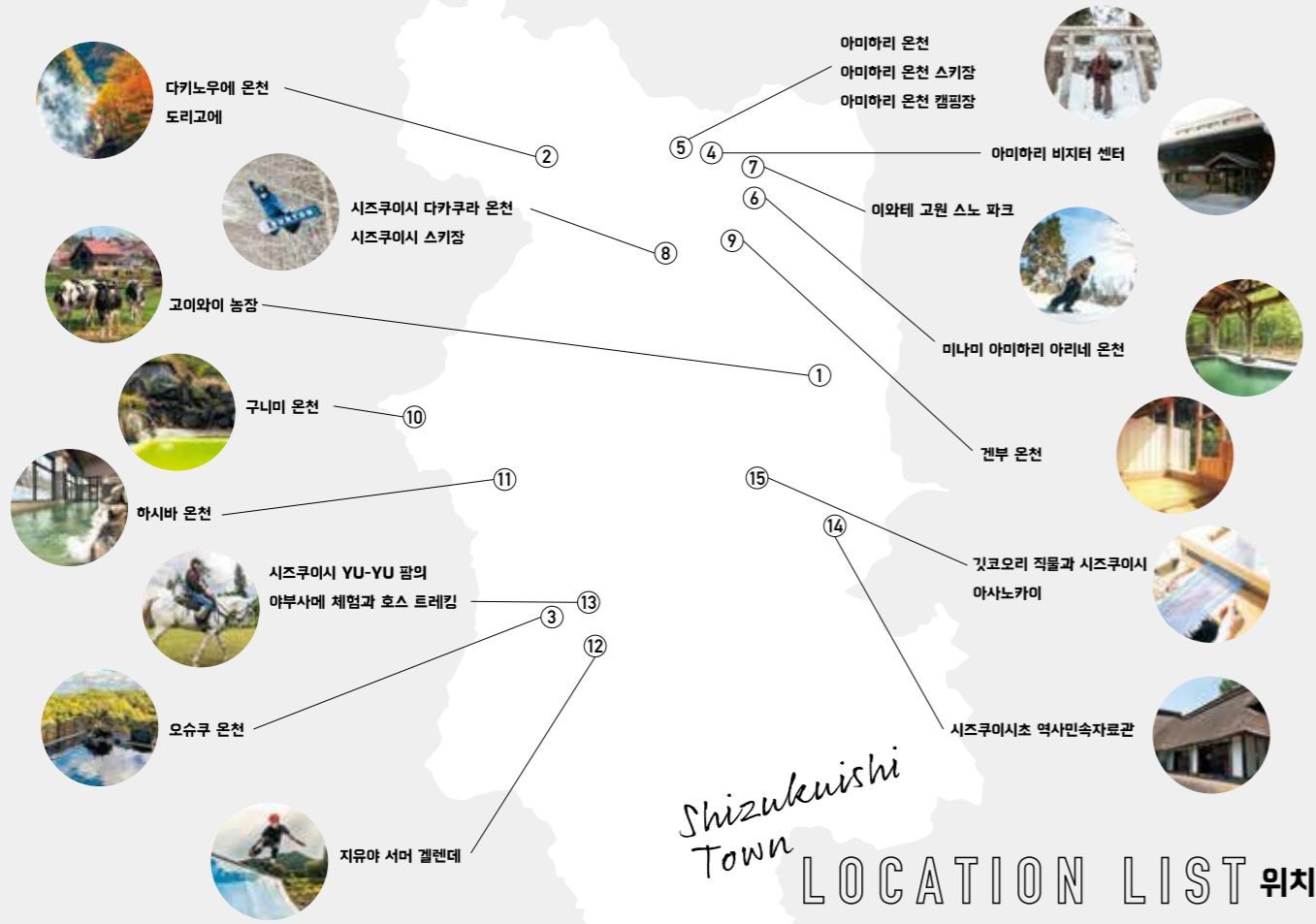
일본 각지에서는 다양한 직물이 발달해 왔습니다. 시즈쿠이시가 산지인 '깃코오리 (亀甲織, 귀갑직) 직물'도 그중 하나입니다. 원래는 가마쿠라 시대(1185년~1333년)부터 메이지 유신(1868년) 때까지 이 지역을 다스렸던 난부번에 바치는 진상품으로 여겨 무사들이 애용했습니다. 삼의 재배부터 직조까지 전통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직물에 거북이 등껍질과 닮은 육각형 무늬가 나타나 미려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깃코오리 직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전성기인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도 깃코오리 직물을 생산하는 기법에 능숙한 직조공이 적었기 때문에 널리 생산되지 못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다른 소재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제조 방법이 도입되어 깃코오리 직물은 쇠퇴했지만, 지역 주민들에 의해 다시 부흥하여 이 독특한 직조 방식이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깃코오리 직물이 중요 전통공예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기법은 시즈쿠이시 아사노카이의 구상원들이 계승하고 있습니다.

요직기를 사용해 만드는 점도 깃코오리 직물의 특징입니다. 직조공은 전신을 사용하여 짜기 때문에 체력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됩니다. 일본 대부분의 지역에서 요직기 대신 사용하기 쉬운 바닥 거치형 직기가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도 깃코오리 직물은 귀중한 시즈쿠이시의 공예품입니다.

현재 시즈쿠이시 아사노카이에서는 시즈쿠이시 농업자 트레이닝 센터에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깃코오리 직물의 시연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1. 고티와이 농장**
<https://www.koiwaifarm.com>
- 2. 다키노우에 온천와도리고에 폭포**
- 3. 오슈쿠 온천와 오타키 폭포**
- 4. 아미하리 비지터 센터**
<http://amihari17.ec-net.jp/>
- 5. 아미하리 온천 아미하리 온천 스키장 아미하리 온천 캠핑장**
<https://www.qkamura.or.jp/iwate/>



- 6. 미나미 아미하리 마리네 온천**
<https://www.yu-kotan.jp/>



- 7. 이와테 고원 스노 파크**
<https://iwatekogen.jp/>



- 8. 시즈쿠이시 다카쿠라 온천 시즈쿠이시 스키장**
<https://www.princehotels.co.jp/shizukuishi/>



- 9. 겐부 온천**



- 11. 하시바 온천**
<https://www.anekko.co.jp/>



- 12. 자유야 서머 겔렌데 (Summer Slope) (워터 점프 파크)**
<https://jjiyu-ya.amebaownd.com>



- 13. 시즈쿠이시 YU-YU 팜의 야부사메 체험과 호스 트레킹**
<https://yu-yu-farm.com>



- 14. 시즈쿠이시초 역사민속자료관**

- 15. 시즈쿠이시 아사노카미**

각 사이트가 없는 위치는 다음 URL을 방문하세요.
<https://www.shizukuishi-kanko.gr.jp/>



시즈쿠이시 여행 브로셔

DISCOVER SHIZUKUISHI

시즈쿠이시초 관광상업과

<https://www.town.shizukuishi.iwate.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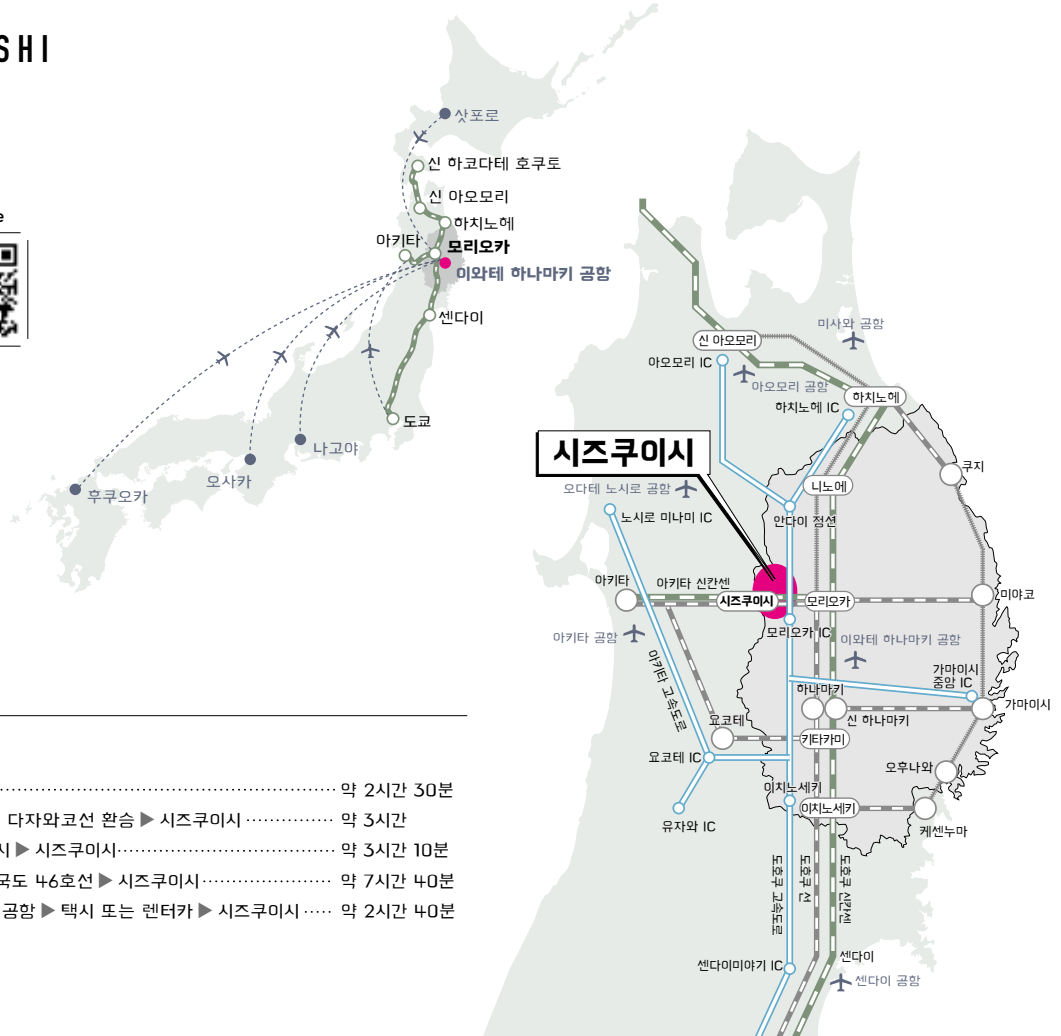
official web



instagram



youtube



시즈쿠이시

교통 ACCESS INFORMATION

도쿄에서

- 아키타 신칸센(코마치) 도쿄 ▶ 시즈쿠이시 약 2시간 30분
- 도호쿠 신칸센(하야부사) 도쿄 ▶ 모리오카 ▶ JR 다자와코선 환승 ▶ 시즈쿠이시 약 3시간
- 도쿄 ▶ 모리오카 ▶ 택시 ▶ 시즈쿠이시 약 3시간 10분
- 동북 고속도로 도쿄 ▶ 모리오카IC ▶ 국도 46호선 ▶ 시즈쿠이시 약 3시간 40분
- 비행기(JAL/ANA) 하네다 공항 ▶ 아키타 공항 ▶ 택시 또는 렌터카 ▶ 시즈쿠이시 약 2시간 40분